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의 이수제약과 극복 방안

Constraints to the Transmission and Solutions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Dance Successors

김정련, 김명주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미디어학과

Jeong-Ryeon Kim(dance0129@hanmail.net), Myong-Ju Kim(kmj8885@hanmail.net)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의 이수제약 요인을 총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무용분야 3개 단체에서 1개 단체에 2명씩 총 6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분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승자는 가정에서의 이해도, 개인의 체력 문제 등의 개인적 제약을 받는다. 둘째, 무용전승자는 이수시험자격획득 까지 걸리는 기간, 연습의 효율성, 전수환경 등의 구조적제약을 받는다. 셋째, 무용전승자는 회원 간의 관계와 보유자와의 관계 등의 대인적 제약을 받는다. 극복방안으로 전국에 소규모의 전수교육장 설립, 객관화된 이수평가 기준의 정립을 통한 이수기간의 현실화, 무용이수교육만이 아닌 화합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중심어 : | 중요무형문화재 | 전승자 | 이수제약 |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on providing solutions for overcoming constraints to the transmission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dance successors. For accommodating this approach, six career dancers, from the Dance Society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ere invited as the research participants for this study. The In-Depth Interviews and the classification analysis are used as a way of structuring and understanding my observations about these tasks. These interviews have also been verified by an expert group. In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s numerous obstacles which can restrict the transmission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re as follows; first, the dance successors are constrained by personal reasons such as physical strength and mutual understanding at home; second, the dance successors are affected by the structural constraint of programs such as required time for the completion of training, efficiency of the training program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ird, the dance successors are constrained by personal relation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selves, or between the dance successors and holder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Suggested solutions for overcoming the constraints to training programs are; building small sized training centers throughout the country; making training time realistic for individuals; and making programs to train the dancers as well as making it sociable.

■ keyword : |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 Successors | Constraints to the Transmission |

I. 서론

우리 민족의 숨결과 얼을 포함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는 그간의 정치·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많다. 무형문화재는 한번 소멸되면 영원히 재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절실하게 이들의 보존·전승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도록 한다[18]. 무형문화재는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우리나라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큰 문화·예술형태, 즉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 되었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2항). 이러한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정부에서 지정하여 중요무형문화재라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기준 예능 72개, 기능 53개 종목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 182명(중복지정 1명 제외)이 인간문화재로 인정돼 있다. 이중 무용부문은 진주검무·승전무·승무·학무·태평무·처용무·살풀이춤 7개가 지정되어 있다.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전수자→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4단계로 되어 있다. 단계별 소요 기간은 전수자→이수자 최소 3년, 이수자→전수조교 약 15년, 전수조교→보유자 약 2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20]. 이러한 전승구조는 보유자가 되기까지의 능력에 따른 단계별 성취 육구를 만족시켜 증도에 전승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장치이다[3]. 이렇듯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도적으로 문화재를 보호·육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많은 보존단체들은 전통춤을 연구하고 전승하려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들어 그 명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18]. 또한 수년 후에는 전통춤의 예능과 정신이 단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를 김선영[3]은 서구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문화의 유입으로 우리민족의 얼과 혼이 담겨있고 손때와 땀방울이 맺혀 있는 우리전통춤을 과소평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다.

무형문화재를 보존·전승시킨다는 것은 그 예술이나 기술을 전승시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공연예술의 경우 문화유산은 악보나 기록물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종목을 실연(實演)하는 예술가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다[9]. 1982년부터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전수교육은 무형의 문화 대부분이 스승으로부터 사사하여 기·예능을 습득하는 도제식 교육을 제도화 한 것[10]으로 무엇보다도 사람이 실현·계승되는 것으로 후계자 또는 전수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수교육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된다[2]. 특히 중요무형문화재의 무용분야는 타 지정분야와는 달리 전승자의 몸과 마음을 통해 전승되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생명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한번 소멸되면 영원히 재생할 수 없는 것[7]이기에 전수자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무형 무형문화재 제도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민족문화의 원형을 보호하려는 목적 하에 성립[16]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예술 형태의 직접 생산자들인 전승자들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승자의 사전적 의미는 기술이나 지식 따위를 이어 받아 전하는 사람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의 보유자, 준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자를 총칭하고 있다. 전수 및 이수자에 관한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면,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한다. 이러한 이수증을 교부 받기 위하여 치루는 심사를 이수 시험이라 하며, 이수증을 교부 받은 자를 이수자라고 한다. 전수자는 보존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이수증을 받기 전까지의 전승자를 말한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은 전승하는 주체가 사람이며 그 전승업무를 맡고 있는 대부분이 이미 고령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재무용부문의 보존·전승의 주체인 무용전승자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 연구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무형문화재정책과 행정에 대한 연구[3][6][11][5], 무형문화재의 활성화방안 연구[8][17], 무형문화재 전승에 대한 연구[1][2][13][7][18][19] 등이 이루어졌다.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국내 연구방법 유형

은 실태조사나 문헌중심의 기술연구를 이용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질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 동안의 연구방법으로는 전승자들의 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와 이해를 가지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이수를 제약하는 요인을 발견하여, 그 극복방안을 알아 보는데 있다. 전승자들의 당위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개선되어야 할 이 분야의 학술적 자료를 축적하고 이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은 물론, 전승자들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지정 목적을 극대화하고 새롭게 재창조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무형의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는 실기인종에서 무용을 중심으로 이수자와 전수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이수자인 연구자가 직접 보존회단체 속에서 지켜 본 경험을 떠올려 입문한 후 최소3년이 경과해야 얻는 이수시험의 자격획득에서 이수자가 되기까지 긴 시간 중, 단체에서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편함으로 중도탈락 하고 마는 전수자, 이수 시험에 탈락한 후 보존회를 탈퇴하는 전수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 이수증을 획득한 후 보존회에 나오지 않는 이수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전수교육조교 이상의 실기인 들은 제자·후배의 존경과 교육보조비의 지급 등의 만족감으로 중도탈락률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2010년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무용부문 보존회에 등록되어 있고,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3년 이상 전수교육 받은 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한 이유는 문화재법 제24조 제2항 『중요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

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무용부문 보존회 진주검무·승전무·승무·학무·태평무·처용무·살풀이춤 7개 단체 중 단체종목이며 경남 통영에 보존회를 두고 있는 승전무, 개인종목이며 서울에 보존회가 있으나 대전으로 보유자 선생이 직접 내려와 전수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승무, 단체종목이며 서울에 보존회를 둔 처용무보존회 3개 단체를 선정하여 1개 단체에 2명씩 총 6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허미자	곽민정	김연아	윤수진	유소리	정찬우
성별	여	여	여	여	여	남
연령	30대	40대	40대	40대	30대	30대
학력	박사 과정	박사 과정	학사	박사 수료	석사	석사
경력	20년	23년	25년	27년	17년	15년
결혼여부	미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실제 거주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통영	대전
전수교육 장소	경남 통영	서울	대전	대전	경남 통영	서울
직업	무용 프리랜스	대학 강사	무용학 원장	무용 학원장	무용 학원장	무용 학원장
소속단체	승전무	처용무	승무	승무	승전무	처용무
전승단계	전수자	전수자	전수자	이수자	이수자	이수자

* 참여자들의 명칭은 가명임

2. 자료수집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된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이다. 이러한 면담에는 기본적으로 반(半)구조화된 형식이 적용되었고, 각 주제별 주요 질문(leading questions)을 중심으로 연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관련내용을 얻기 위해 준비된 하위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개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대인적 제약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심층면담은 모두 개별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다고 선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공식적인 면담의 경우는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녹음하였다. 면접내용 및 범위는 [표 2]와 같다.

표 2. 면접내용 및 범위

구분	세부내용
개인적 제약	가정에서의 이해도, 개인의 건강 및 체력
구조적 제약	단체에 입문한 후 이수시험자격 획득까지 걸리는 기간, 전수하는 날 연습시간의 효율성, 이동거리와 소비되는 시간, 전수시설과 환경, 보유자의 교육 능력
대인적 제약	회원 상호간의 관계, 보유자와의 관계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radley[21]가 사용한 분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류분석이란 문화적 의미의 한 부분 혹은 요소를 발견하고 나서 그것들이 어떻게 조직되는 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말한다[5]. 분류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자료를 먼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세하게 전사한 다음, 해당되는 내용을 집락화 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서로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다음, 결과를 분석,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수계약의 요인을 개인적계약과 구조적계약, 대인적 계약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의 진실성

이 연구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체육 및 무용학 전공인 박사학위 소지자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2회 이상 실시하였다. 전문가 1차 회의에서는 연구 설계와 연구방법, 면접의 범위 및 내용, 2차 회의는 자료 분석과 논의의 타당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본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과정과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가 적합했는지, 자료 분석과 논의 방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검토를 의뢰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의 이수를 제약하는 요인

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무용전승자들은 이수를 위해 따르는 제약은 스스로 참아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계약 요인으로 개인적, 구조적, 대인적 요인을 결과로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수계약의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제약 요인

전승자의 이수를 제약하는 개인적 제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의 전승자들은 육아·가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배우자의 이해도가 제약요인이 되었다.

둘째, 전승자가 전수과정에서 무용을 반복적으로 연마한 덕분으로 정신적 건강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각자의 거주지와 전수교육이 이루어지는 전수교육관까지의 거리에서 오는 육체적 피로함을 이수계약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 운행이 하지 않아서 직접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 주기 때문에 남편이 대신 해준다. 그럴 때는 괜히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며 이런 일이 몇 회 반복되면 부싸움의 원인이 되었다. (곽민정 면담 중에서)

...그런 것은 없었고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시선이 있었다. 가끔 힘들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동료들이 부러워해서... (윤수진 면담 중에서)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도움은 됐죠. 춤을 계속 저 혼자 추면서 이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혼자 많이 연마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많이 마음수련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윤수진 면담 중에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지금 거주지가 부산이다 보니까, 이동하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고 출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마음과 다르게 스케줄 조절하는 게 어렵습니다.(허미자 면담 중에서)

가족은 인간관계에서 일차적 지지집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중 배우자와의 관계는 기혼자에게 있어 가장 친밀한 가족관계이다[14]. 직업여성의 경우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무용수로서의 다중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은 배우자의 이해로써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의 도움으로 자신의 일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방지, 한미라[15]의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거리감에서 오는 불편함을 이유로 이수 입문을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을 균등하게 제공하고 있는 승무보존회의 경우, 서울에 보존회가 있으나 보유자가 주1회 직접 지방으로 내려와 무형문화재 교육을 전수하고 있었다. 이는 이수제약을 해결하려는 승무보존회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보였다. 많은 보존회단체들이 현재는 정해진 전수날짜에만 모여서 전수교육을 받고 있으나 전국에 소규모의 지부 형태 전수교육장이 있다면 전수교육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혼자의 육아문제도 이러한 시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이다.

2. 구조적 제약 요인

전승자의 이수를 제약하는 구조적 제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너무 오랫동안 소요되는 전수기간은 이수의 제약이 되었다.

문화재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전수교육을 3년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수시험 자격을 받는 것조차도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으며 이수하는데 까지 8년~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이수시험자격 획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각 보존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수까지의 긴 기간을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그 기간을 5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한범[6]은 이수 연한의 최소 기준에 <7년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전수시설과 환경에 제약이 있었다.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가 행하는 전승교육의 실제적인 공간은 전수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2]. 정부가 1973년부터 전수교육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무용분야 전용 전수관은 진주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유일한 실정이다[3]. 전수교육관의 확충은 올바른 전승과 전수 인구를 늘리는데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이다.

셋째, 전수과정에서의 수업진행에 대한 효율성에 불만이 있었다.

이는 전수교육관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해 정해진 연습시간이 너무 짧고 그것 또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한 공간에서 실기를 하다 보니 만족할 만큼 연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마음 놓고 전수할 수 있는 교육공간의 여건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무형문화재의 현실적이지 못한 전승교육공간의 부족을 보고한 김세건[2]의 연구와 일치한다.

넷째, 보유자의 교육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들 대다수는 도제식 교육 방법으로 그들의 스승에게 문화재를 전수받았다. 문화재의 전수교육이란 겨레의 삶과 숨결이 담긴 민족의 자산을 후손에게 전해주는 일이며 특히 무형문화재는 인간에 의해 전승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과 함께 당해 문화재를 감싸는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여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도제제도를 통한 전수교육이 전수교육으로 적절하다는 최미자[18]의 주장은 적절하다. 그러나 지금의 전수자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된 전수교육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기간이 길어서 힘든 것은 없었다.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나만의 춤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이수기간이 긴 사람은 그 기간만큼 춤을 잘 추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수하는데 9년이 걸렸고 우리 단체는 최소 6-7년은 걸린다. 전공자들이라 5년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윤수진 면담 중에서)

대략 9년 정도가 걸렸다 나는. 그러나 나는 그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수자라는 것이 많은 연습을 요하기 때문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체에 있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단순히 이수증을 따고 그때그때에 치중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수기간은 조금 7~8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춤이 그냥 어디에서 취도 몸매 배여 나올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유소리 면담 중에서)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서 수업시간에 녹초가 되어 힘들었다. 근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고 참여하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내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것에 비해 그 내용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정찬우 면담 중에서)

먼 거리를 연습을 위해 참석하는데 실제적인 연습시간의 부족으로 충분히 전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돌아갈 때, 전수날짜에 이루어지는 연습량의 부족...회원이 많고 종류가 많은 관계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시작과 끝남은 아쉽다.(허미자 면담 중에서)

가르쳐 주실 때는 가르침을 받는 방식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춤을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게 추실 때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면 '왜 저러시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한다.(유소리 면담 중에서)

이수조건의 적정기간에는 이수자와 전수자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수시험을 앞두고 있는 전수자들은 3~5년이면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했으나, 이수가 끝난 이수자들은 6~8년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입장 차이가 현재 각 보존회마다 강화되고 있는 이수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상 할 수 있었다. 이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무형문화재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화되고 표준화된 이수기준의 정립이 절실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무형문화재 입법에 있어서의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 이수기간의 현실화로 이수 시험을 준비하는 전수

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되어야겠다.

많은 보존회단체들이 언제든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습이나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보였으며 이러한 공간이 확보된다면 효과적인 전수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보유자 중복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다. 또한 각 보존회 단체는 단기적인 효율적 수업을 위해서는 그룹별 수업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겠다. 김지성[4]의 현재의 무형문화재 제도가 안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수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고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각 무형문화재간의 교육편차는 선생의 입장과 지식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으나, 표준적인 전수 프로그램 마련하고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도제식 교육전승방법도 무형문화재에 따라서는 효과적이겠지만 전수교육 방안도 다각화되어야겠다는 임돈희 등[13]의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3. 대인적 제약

전승자의 이수를 제약하는 대인적 제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승자들은 보유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와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수자 선정에 관한 시비비비가 끊이지 않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은 3년이란 기준과 심사방법의 투명성, 그리고 그 결정에 관한 권한을 보유자나 그 단체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6]이라는 보고가 이를 뒷받침 해 준다.

둘째, 보존회 내부에서 형성되어 있는 파벌과 출신기는 크나큰 이수제약 요소가 되고 있었다.

연구자가 보존회일원으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문제 없어 보이던 보존회가 이수시험전후로는 내부의 분열이 나타났다. 특정의 연(緣)에 기초한 친소의 구분은 파벌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혈연, 지연, 학연 등을 기초로 한 연구주의는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인 태도와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이중한 [12]의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보존회 회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정해진 날과 시간에만 모여 전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자의 일상으로의 복귀는 서로를 알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경조사 및 행사가 있을 때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며 새로운 회원 간 관계 형성에는 소극적이었다.

어려움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친분이 많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춤추는데 빠고 친목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결 되는 것은 없다.(유00 면담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같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의견을 주고받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근본적인 문제는 단지 선생님들이 두 분인 것 밖에 없다. 그것은 회원들이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선생님들이 해결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허00 면담 중에서)

보유자의 편에는 없었다... ..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윤00 면담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를 전수받는 이들의 공통관심사는 당연히 해당 종목의 이수에 있다. 현재 무형문화재이수증은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발급하고 있다. 이는 무용전수자들이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함을 일컫는다. 보유자에게로의 권력 쏠림을 막기 위한 방안은 전수과정을 정확히 기록하는 기록화 작업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전승자들의 의견을 반영·수렴하려는 적극적인 문화재청의 노력으로 이수증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안들이 강제사항의 입법화로 자리 잡혀야 전승자들이 보유자에 대한 대인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이수제

약요인을 분석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는 개인적 제약을 받고 있었다. 즉, 가정생활과의 마찰과 교육 장소까지의 이동거리에 따른 육체적 피로감이 있었다. 이를 위한 극복방안으로 전국에 소규모의 전수교육장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는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었다. 전수과정기간의 너무 긴 시간과 효율적이지 못한 교육시간의 운용, 이동에 투자한 시간에 따른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연습의 부족감이었다. 이를 위한 극복방안으로는 전체 보존회단체들이 객관화된 이수평가 기준의 정립을 통한 이수기간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겠다.

셋째,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는 대인적 제약을 받고 있었다. 서로를 알아가기에는 만남의 한정된 시간이 신뢰를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전수 받는 자들이 교육내용에는 불만이 없었으나 선생님들의 불편한 신경전은 수업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무용이수교육만이 아닌 화합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극복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참 고 문 헌

- [1] 강인숙, “진주전통춤의 전승 및 발전방향: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 연구, 제6집, pp.1-34, 2000.
- [2] 김세건, “전승교육과정의 실상과 문제점에 관한 일 연구”, 비교문화연구회지, 제8권, 제2호, pp.195-234, 2002.
- [3] 김선영, “광역자치단체 무형문화재 제도의 연구”, 한국민속학회지, 제44권, pp.49-89, 2006.
- [4] 김지성,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의 현황과 과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5] 권민혁, “비조직적 스포츠 참가에서의 갈등상황”,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25-141, 2003.

[6] 서한범, “무형문화재 정책”, 한국민속학회지, 제38권, pp.279-320, 2003.

[7] 심혜경, “중요무형문화재 무용분야 단체종목의 전승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대한무용학회지, 제46호, pp.107-126, 2006.

[8] 이용학,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9] 이용식, “한국 전통음악의 전승과 미래 -가야금산조를 중심으로”, 한국공연문화학회지, 제19호, pp.281-315, 2009.

[10] 이승수, 최미진, “무형문화재 택견 전승자의 계보연구”, 체육사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14, 2009.

[11] 이장열, 한국무형문화재 정책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2] 이종한,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제1권, 제1호, pp.83-94, 1994.

[13] 임돈희, 로저 L.자넬리, “무형문화재의 전승실태와 개선방안”, 비교민속학회지, 제28권, pp.437-455, 2005.

[14] 장현숙,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배우자지지 및母子와의 애착특성이 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5] 전방지, 한미라, “콘텐츠 비즈니스 여성기업인의 일”, 한국콘텐츠학회지, 제8권, 제9호, pp.150-165, 2008.

[16] 정수진, 한국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7] 최금숙,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8] 최미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6권, 제2호, pp.715-725, 2007.

[19] 한승희, 중요무형문화재 전통춤분야 보존·전승의 발전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0] 세계일보(2010, 1, 26), <http://www.segye.com>.

[21]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저자 소개

김 정 련(Jeong-Ryeon Kim)

정희원



- 1990년 2월 : 경희대학교 무용학과(체육학사)
 - 200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문화예술학 석사)
 - 2010년 12월 :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미디어학과(예술학박사수료)
- <관심분야> : 무용사회학, 무용심리

김 명 주(Myong-Ju Kim)

정희원



- 198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이학사)
 - 198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이학석사)
 - 2005년 8월 : 고려대학교(이학박사)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미디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무용사회학, 무용교육학